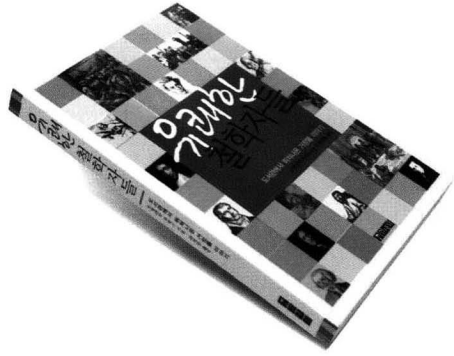


놓치기 아까운 이달의 책



● 지리학을 알면 생활이 보이고 사상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인문지리학의 시선》  
전준한·서민철·장의선·박승규 지음 | 논형 | 464쪽 | 값 19,000원

“사막에서 태어나 평생 그 속에서 자란 사람이 열대 우림의 강한 소나기를 맞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서문에 나오는 말이다. 정말 어떤 느낌이 들까? 서문을 쓴 전준한 씨는 지리학은 ‘다른 장소’의 사람들과 ‘이 장소’의 우리를 만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의 다양한 지역과 장소들,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양식을 하나의 모자이크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한다.

《인문지리학의 시선》은 젊은 지리학자 네 명이 모여 만든 인문지리학 개론서다. 인문지리학이라는 게 우리 학문의 전통에서 동떨어진 최신이거나 새로운 학문인 것은 아니다. “살 곳을 정하는 데에는 첫째 지리(地理)가 좋아야 하고, 다음 생리(生理)가 좋아야 하며, 다음 인심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산수가 아름다워야 한다”고 적고 있는 이중환의 《택리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문지리학서다.

이 책은 지리학의 개념들과 주요 쟁점을 통한 지리학의 역사를 들려주고, 고지도로부터 가상공간을 위해 등장한 수치지도 및 GIS에 이르는 각종 지도가 지닌 진실과 거짓, 객관과 왜곡의 문제들을 이야기한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풍수사상과 촌락, 도시의 원형인 읍성, 그리고 근대적 공간이 도시를 인문지리학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한다.

이 책에 깔린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일반인들이 지리부도에서 보아온 지도와 기후도, 분포도, 지명 등이 지리학의 전부라고 오해하고 삶과 동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비록 공저라는 한계가 있지만 저자들은 일반인들이 지리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다.

신동섭 기자

● 철학자들의 ‘X파일’ 을 공개한다

《유쾌한 철학자들: 도서관에서 뒤쳐나온 거장들 이야기》  
프레데릭 파제스 지음 | 최경란 옮김 | 열대림 | 272쪽 | 값 12,000원

엄숙하고 고루한 일상, 여기에 선명질적인 기질까지... 철학자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보편적인 인상이다. 프레데릭 파제스는 《유쾌한 철학자들》을 통해 “그러나 철학자들의 삶이 얼마나 유쾌한 것인 줄 아느냐?”고 묻는다.

소크라테스부터 사르트르에 이르기까지 서양철학의 간판급 인물들을 섭렵하는 책은, 유머와 풍자를 담은 간결한 문체로 철학자들이 가진 다양각색의 직업, 다채로운 연애담 등 그들이 이면의 일화들을 속속들이 밝혀 소개한다.

쇼펜하우어의 영광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아니라 짧은 저서 《여록과 보유》 때문이었으며, 칸트의 영광 역시 《순수이성비판》 보다는 얇은 저서 《숭고한 감정에 관한 관찰》 때문이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강연의 달인이었던 반면 플로티노스는 강의 대신 청중에게 질문을 요구했다. 난해한 저술로 유명한 헤겔의 ‘이유있는 사변’은 압권이다. “이 책이 적당한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 년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인데, 그렇지만 생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네.”

책이 가진 또 하나의 미덕은 ‘도서관에서 뒤쳐나온 거장들 이야기’ 라는 부제에서 드러나듯, 도서관에 갇힌 오늘의 철학자들을 비판하는 대목에 있다. “자기 자신의 사상을 발표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저자들을 인용하기, 논거를 휘두르며 싸우는 일을 피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휘두르며 싸우기” 등을 자행하는 ‘도서관 안에 갇힌 오늘날의 철학’에 ‘매력 없음’이란 낙인을 힘주어 찍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 없이도 철학할 줄 알았던 철학자들, 사변적이라 생각했던 그들의 일화가 직립하는 순간이다.

박용두 기자



《인터넷 글쓰기의 달인》  
최기호 외 5인 지음 | 세종서적 | 320쪽 | 값 11,000원

● 웹세상 약속 지키며 달인 되시지요

“너나나나 글쟁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낯설지 않다. 오마이뉴스는 수많은 시민기자를 키워냈고, 싸이월드에는 ‘페이퍼’란 카테고리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개인에게 책의 발행인이 될 기회를 주었다. 누구나 괜찮은 기자가 되고, 평론가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인터넷 글쓰기의 달인》은 나도 한번 폼나게 써보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는지에 관한 해답을 제시한다. 분야라? 칼럼, 영화평론, 음악평론, 취재기사 등 장르를 막론한다. 장르별로 챕터를 나눠 글쓰기 방법론을 알려주는 저자들은 기사문 작성에선 ‘인상적인 리드문’을, 취재원 앞에선 ‘정보력’을, 서평에선 ‘객관성을 담보한 냉철한 글쓰기’ 등을 필수덕목으로 강조한다. 물론 웹세상이 아닌 종이책 세상의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누구나 아는 얘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쉽게 실천하기 힘든 사항들을 꼬집어 주면서 질책을 가한다는 매력은 무시할 수 없다.

사실 핵심은 앞,뒤에 있다. 1장인 ‘디지털 시대, 글쓰기를 잘하려면’ 그리고 마지막 장에 덧붙인 ‘네티켓, 인터넷 글쓰기 윤리’를 주목하시라. 저자들은 책의 앞, 뒷면에서 진짜 속내를 내민다. 마음만 제대로 갖추면 방법은 금세 터득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 대목들이다. 많이 읽고 많이 적는다. 그리고 어떤 현상을 보곤 열린 사고로, 입체적인 시각으로 그것들을 분석한다. 디지털 시대 글쓰기를 시작하는 이는 욕설이나 근거 없는 비방을 삼가며, 사실을 제대로 보는 정보 읽기와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정직한 글쓰기는 필수다. 평등한 글쓰기의 자유를 얻은 대신 웹 세상에서의 몇 가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알짜 현장전문가들의 조언이니 웹세상에 접속할 때마다 윤리강령처럼 읽어보고, 가이드북으로 활용하면 좋을 책이다.

김청연 기자



《식민지의 적자들》  
공임순 지음 | 푸른역사 | 500쪽 | 값 19,500원

● “부끄러운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춘원 이광수는 “죄 없는 자가 나에게 돌을 던지라”는 성경구절을 인용해 자신의 친일행적을 정당화 했다. 그의 말 속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했다는 희생자의식과 식민지인으로서의 원죄의식이 교묘히 결합돼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인 공임순 씨는 그런 춘원을 향해 쓴 소리를 던진다.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어야 옳다고. 무치, 곧 ‘부끄러움’이 부재돼 있음을 지적한다. 공씨는 그것을 “타자의 시선이 내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규제하고 있음을 깨닫는 데서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정의한다.

이번에 나온 《식민지의 적자들》은 현실과 과거 역사를 조망하며 역사를 성찰하고자 했던 4년 여 간의 힘든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 저자는 그 자신과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지만 한국의 역사는 ‘부끄러움의 감정을 철저히 말살시킨 역사’라고 정의한다. 이런 논지는 이광수의 《이순신》 김훈의 《칼의 노래》 김탁환의 《나, 황진이》와 같은 소설과 <명성황후> 등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대상으로 펼쳐진다. 한 예로,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을 상대로 유일하게 승리한 이순신을 소재로 소설을 쓴 이광수는 오로지 이순신만이 영웅인 설정으로 무능한 조선의 조정을 비약한다. 일본 조선 침략의 빌미는 결국 조선이 제공했다는 의미다.

저자는 “역사소설을 비롯한 역사-드라마 및 역사 이야기의 프리즘을 통해 친일과 반공이 서로 짝패임을 밝혔다”고 말한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영웅들이 어떻게 왜곡돼 왔는지를 파헤치는 것이다. 한편 ‘황진이’부터 ‘명성황후’ 등의 여성인물은 젠더사의 관점으로 새롭게 재조명했다.

홍이현 기자